

## 대학사회와 폭력

### University community and violence

이 철 호

남부대학교

Lee cheol-ho

Nambu Univ.

#### 요약

대학사회에는 신입생환영회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폭력, 대학 동아리 행사에서 음식 찌꺼기를 섞은 막걸리를 뿌리는 가혹행위 등 선배들의 후배들에 대한 폭력을 비롯하여 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폭력 등 위계질서를 빙자한 권위주의 군사문화의 퇴영적 잔재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대학사회에 잔존하는 폭력의 원인과 그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 서론

폭력(violence, Gewalt)이라는 용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용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차원과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른 명사들과 결합한다. 예컨대, ‘가정 폭력’, ‘학원 폭력’이라는 말이 있고, ‘경찰 폭력’, ‘국가 폭력’이라는 말이 있으며, ‘아동 폭력’, ‘성폭력’이라는 말이 있다.[1] 폭력은 파괴를 수반할 수 있는 강렬한 힘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두려운 것이지만, 경험과 적응 여부에 따라서 그 강렬함의 정도와 두려움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폭력성을 결정하는 것은 폭력의 사용자가 아니라 폭력의 대상이다.[2]

우리 사회는 매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신입생들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된다. 그런데 2016년에도 강제 음주나 성희롱, 폭행, 비용 강요 등 악습(惡習)들이 재연되어 오고 있다. 일부 선배 학생들은 자신들이 신입생 때 당했던 것보다 더한 ‘갑(甲)질’까지 하고 있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하는 경향까지 보인다(문화일보, 2016년 2월 22일, 31면 사설 참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앓뻐하겠다며 신입생에게 막걸리 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땀땅에 머리를 박는 ‘원산 폭격’ 등 잘못된 군기 잡기 관행도 공공연히 벌어진다. 또 MT나 선후배 대면식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학사회에 잔존하는 폭력의 원인과 그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대학사회 폭력의 실태

대학 신입생 신고식에서는 폭력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반나체로 줄지어 경례를 하고 춤을 추는가 하면, 포르노 영화에서나 나오는 낫 뜨거운 장면까지 연출됐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인천00대 0000과 2006년 신입생 신고식 장면을 담은 사진에 따르면, 남자 신입생들은 넥타이를 맨 상의 정장 차림에 하의는 팬티만 입는 ‘엽기적’인 모습으로 줄지어 선배들에게 경례를 했다. 여학생 신입생들은 이들 남학생의 뒷줄에서 있다. 여흥시간에는 거의 팬티를 벗은 모습으로 단체로 춤을 추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여학생이 남학생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바나나로 보이는 과일을 먹기도 했다. 일부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혼부부가 행하는 이벤트로, 당하는 학생은 건디기 힘든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이다(대학 신고식, 폭력 넘어 성희롱 “이럴수가”, 「한겨레신문」 2007년 3월 24일 기사).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대학가에서 남학생들이 엠티(MT) 현장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서울신문, 2015년 2월 16일, 14면 참조).

강원도의 모대학교 모 동아리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얼차려’로 군기를 잡았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동아리와 학교 측이 수습에 나섰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강원대 모 탁구 동아리 소속 한 선배가 7일 저녁 동아리 건물 인근에서 여성 후배는 손을 들고, 남성 후배는 엎드려뺨치기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후배들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6.4.11일자). 이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학가 폭력을 다룬 기사의 몇 개일 뿐이다. 대학가에서 ‘전통’이란 이름의 대학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명지대 권인숙 교수와 연세대 나임윤경 교수 등이 실시한 전국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의 15.3%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35.6%가 언어 폭력을 당했으며,

같은 비율로 단체 기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예체능 계열의 64%가 단체기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들 대학에서 폭력이 일상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080525132008334>).

대학사회에는 신입생활영회에서 성희롱과 같은 폭력, 대학 동아리 행사에서 음식 찌꺼기를 섞은 막걸리를 뿌리는 가혹행위 등 선배들의 후배들에 대한 폭력을 비롯하여 대학교수의 학생에 대한 폭력 등 위계질서를 빙자한 권위주의 군사문화(軍事文化)의 퇴영적 잔재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Ⅲ. 대학사회 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

#### 1. 대학사회 폭력의 원인

정희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특유한 ‘얼차려 문화’가 유독 한국 대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개화기에 외국 문물을 접하면서 열등감을 느낀 조선의 지식인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멍쳐야 한다’는 인식을 했고, 결국 이것이 콤플렉스로 작용해 학교가 획일적 집단주의를 전파하는 장소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캠퍼스 폭력’을 유지시키는 연결고리로 ‘예절’을 꼽았다. “예절은 위계질서를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폭력을 촉발시키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며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에서 보듯, 예절이 폭력의 면죄부로 악용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겨레신문, 2010년 3월 24일, 10면 참조). 또한, 대학이 교수와 학생의 소통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 대학사회에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는 가슴에 지혜를 쌓는 교육은 등한시하고 머리에 지식을 잡아넣는 교육에 치중한 탓이라고 보며, 이제 지식만능의 엘리트 교육은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중시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3]

필자는 대학사회에 폭력이 온존하고, 단순한 술문화를 넘어 성적인 문제와 결합하는 폭력으로 진화하고 심화되는 주된 원인은 ‘권위주의적 군사 문화의 왜곡’과 ‘초·중등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에 있다고 본다. 과거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군대식 위계질서’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군사 문화가 대학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대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 크지만 그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폭력에 관대하여 진 부분, 폭력을 너그럽게 용인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초중고 교육이 민주시민의 덕목을 키우는 교육부재와 인권 교육없이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술 강권과 과음 등 잘못된 음주문화와 같은 폭력에 길들여지고 이를 당연시 하는 원인도 크다.

#### 2. 대학사회 폭력의 대응방안

1945년 출발한 한국의 대학교육은 고급 인력을 대량생산하는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에 부딪쳐 대학의 자율성은 상실되고 학문의 자유는 표류하였다. 한국의 대학은 안으로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불리한 재정 조건 아래 학사행정에서의 교육외적 비리와 대학운영에서의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역사적으로 한국 고등교육은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획일적 교육내용, 인성과 창의성이 무시되는 교육 방식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다.[4]

대학사회에서 선배(들)가 후배들에게 가하는 이른바 ‘똥군기’ 폭력을 비롯한 성희롱, 성폭력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수를 비롯하여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학사회의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반폭력(反暴力)문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학내에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실시해야 한다. (2) 바른 음주교육 이른바 ‘주도(酒道)’ 교육과 음주문화 개선이 절실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음주(飲酒)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8조 9839억원이었다(2009년 기준). 무조건 금주를 강요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바른 음주문화를 익히도록 교육해야하고 절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3) 대학내 성폭력상당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의 위계적인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에 대하여 학내 방관과 묵인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대학사회의 성폭력 문제 또한 지속적인 성차별적 인식 개선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폭력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는 우리사회의 관대한 법집행과 온정주의(溫情主義) 범문화화를 극복해야 한다.

대학사회에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대학사회에 남아있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 ■ 참고 문헌 ■

- [1] 공진성, 폭력, 책세상, 2009, p.10.
- [2] 공진성, 위의 책, p.21
- [3] 김정기, 신입생 학대는 소통 부재가 낳은 괴물, 중앙 SUNDAY 2016년 4월 3일, 29면.
- [4] 차하순, 現代 韓國大學의 成長과 문제점, 『韓國史市民 講座』 제18집(1996), 일조각, pp.130.
- [5]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 [6] 우에노 나리토시(上野成利), 폭력, 산지니, 2014.
- [7]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